

언어 문화로서 상생화용 연구의 토대*

최영환**

〈 차례 〉

- I. 서론
- II. 상생화용의 개념
 - 1. '상생화용'의 용어 재검토
 - 2. '상생화용'의 개념 정립
- III. 상생화용의 교육적 위상
 - 1. 상생화용과 전체 교육의 관계
 - 2. 상생화용과 국어 사용 능력
- IV. 상생화용 연구의 방향
 - 1. 상생화용 연구의 초점
 - 2. 상생화용 연구의 두 축
 - 3. 상생화용과 언어 사용 전략
- V. 결론

I. 서론

상생화용이라는 용어가 국어교육계에 등장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서구 중심의 근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동양의 세계관에 입각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살아가기 위한 움직임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국

* 이 연구는 2003년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연구지원을 받은 것임.

**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어교육 안에서도 서구적 언어 사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상호 공생의 바탕을 마련하고 구현하려는 상생화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구체적 노력을 하나씩 축적해 가는 과정에 있다.¹⁾

이미 21세기에 대비한 학문적 준비와 노력은 여러 학문 분야의 업적이 말해주고 있으며, 상생화용의 연구도 최현섭 교수 자신에 의하여 최현섭(2003) 이전부터 이미 수없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상생화용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대해 재론하면서 정확하게 자리를 매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상생화용의 예시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의 언어 생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담으려고 한다. 아울러, 필자가 강조하는 언어 사용 기능(혹은 능력)을 중심으로 한 국어교육의 전개가 상생화용이라는 새로운 움직임까지 포괄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상생화용은 고등한 언어 사용 기능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실증해 보이려는 것이다.²⁾

이 연구를 통해서, 상생화용이 언어 사용 능력 중심의 국어교육의 일

1) 상생화용에 대한 연구는 최현섭 교수의 제청에 의한 것으로, 21세기 들어서면서 국어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이론을 체계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상생화용이라는 화두 자체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한국의 국어교육은 세계 언어교육의 새로운 지향을 제공하면서 21세기 언어교육을 이끌어 나갈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자못 크다. 사실 상생화용은 필자의 관심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필자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인 '언어 사용 기능과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상생화용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상생화용에 대한 필자의 연구 시작부분이며, 구체적인 전략과 적용은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2) 일부 학자들은 필자를 일러 언어 기능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명칭에는 '기능'이라는 것이 매우 단순한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매우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여러 논문에서 밝힌 바대로 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며, 고등한 정신 과정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상생화용 역시 이러한 고등 정신 과정을 담은 고등 언어 사용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 확신이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확실한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부이며, 일부가 되어야 하고, 그것과는 별도로 상생화용 자체가 국어교육 전반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다³⁾는 이중적 가치를 보여주려고 한다.⁴⁾

II. 상생화용의 개념

상생화용을 언어 문화로 연구하기에 앞서 상생화용 논의의 범위를 결정하고 바람직한 틀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상생화용을 연구하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제 막 학문적 토양에 씨를 뿌려 그 발아를 기다리면서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상생화용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의 선택 및 용어의 개념과 한계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도 독자적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 그리고 연구 결과를 국어교육의 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원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1. ‘상생화용’의 용어 재검토

하나의 학문이 새로 생겨나서 기존의 학문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첫째 조건은 다른 학문과 엄밀하게 구분되는 연구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3) 최현섭(2003: 53)에서는 상생화용이 세계 문명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동양이 부상하는 놀라운 현실에 발맞추어 동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언어교육 이론을 창출하려는 비전에서 출발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4) 이에 대한 논의는 장을 달리하여 다루기로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상생화용의 언어 사용 전략과 같은 것은 필자의 후속 연구로 발표할 예정이다.

점이다. 연구 영역이 독자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연구 대상의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언어를 바라보되 그것을 철학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실용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고, 심리나 사회의 관점으로 보는 바에 따라서도 다르다. 상생화용이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상생화용의 개념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생화용’이라는 용어는, 최현섭(2003: 53)에 의하면, ‘상생적 언어 사용’이라는 뜻이다. ‘상생’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상극’이 전제되어 있고, 상생과 상극은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용어가 학문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하면서 동시에 국어교육이라는 현실에서도 별 무리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하는 목소리도 있다.⁵⁾ 그렇지만 ‘상생화용’이라는 용어는 이미 학문적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며, 대중적 전파력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본다. ‘상생화용’은 ‘상생’과 ‘화용’의 결합체로 이것이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를 담아내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각 부분에 대해 용어로서의 자격과 가치를 고려하면서 용어로서의 타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⁶⁾

학문 용어는 반드시 용어 자체가 개념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야 하며, 용어의 이해가 쉬워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상생’과 ‘화용’은 각각 용어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고 있다. ‘상생’이라는 용어는 한자어의 구성만으로도 이미 ‘서로 돕고 살린다’는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개념이 용어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두 음절이 모두 교육용 기초 한자로 구

5) 사실 이 목소리는 최현섭 자신에 의한 것이다. ‘상생화용’을 제안한 학자로서 그 용어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학문적 정체성을 찾으며, 대중적 전파력까지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이 용어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6) ‘상생화용’이 학문적, 대중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굳이 용어에 대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용어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용어가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이 용어로 앞으로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할 상황에 왔다. ‘상생화용’이라는 용어의 정착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적 의미가 연구와 실천의 형태로 드러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화용'이라는 용어 역시 이미 언어학과 국어교육학에서 적지 않은 학문 역사를 갖고 있는 '화용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학문적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상생화용'이 학문적으로 논의되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고 국어교육의 장에서 학교와 사회, 가정이나 개인의 차원에서도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상생화용'은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자리도 중요하고, 국어교육의 철학으로서 대중들의 국어 사용을 일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생'의 부분은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논의되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어교육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⁷⁾ '화용'은 '화용론'보다 대중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형태이다. '론'이 붙으면 이미 학문적 성향을 나타내고 대중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는데, '론'이 빠진 '화용'은 한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접근할 수 있으며, 한자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의미를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용어 구성은 상생화용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보급하고 우리의 국어교육을 변화시키며 일상적 언어 사용에서까지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미 화용론이라는 학문이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굳이 '상생화용론'이 아닌 '상생화용'을 제안하는 것은 이 둘이 서로 유사하면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화용론이 언어 사용에 대한 객관적, 가치 중립적 연구를 하는데 비해, '상생화용'은 언어 사용을 하되 '상생적'으로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언어 사용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뜻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생화용'이 학문으로 자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론'을 붙이지 않아야 하는 까닭은 자칫 '상생화용'이 일반 화용론의 하위 범주로 인

7) 예를 들면, '상생 경영', '상생 정치', '상생의 도시 개발' 등과 같이 국어교육 이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일반화 되어 있고, 이 각각에서 '상생'은 서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생화용'은 언어학의 하위 분야가 아니라 기존의 철학과 언어학에서 지원을 받지만 그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국어교육의 방향을 주도할 국어교육 철학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상생화용'의 개념 정립

'상생'과 '화용'이 용어로서의 외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제 그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상생'은 둘 이상의 개체가 일정한 관계에 서야하고, 그 관계는 '서로 돕고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둘 이상의 개체가 필요하다.
- ② 각 개체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 ③ 이 관계는 서로 돕고 살리는 것이다.

동양철학에서 '오행상생'은 오행(木火土金水)의 다섯 개의 요소가 있으며, 이들은 일정한 관계에 서서, 서로 살리는 관계에 있다는 철학을 표현하는 것이듯이, '상생화용'에서의 '상생'은 둘 이상의 사람이, 일정한 관계에 서서, 서로 돕고 살리는 언어 행위를 한다는 뜻을 표현한다.

여기에 더하여 '화용(話用)'의 의미도 개념을 담고 있다. '화용'은 '상황과 맥락 속에서 언어 사용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 의사소통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언어를 구성하는 기초 형식에 서부터 의미, 사회를 비롯한 언어 외적인 것까지 다루는 것으로 언어 사용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우리는 '화용'으로부터 다시 몇 가지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 ④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 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⑥ 언어와 언어 외적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

위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부터 추출된 여섯 가지 의미 요소가 상생화용을 규정하는 개념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상생화용은 정적인 언어 사용이 아니라 동적인 언어 사용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언어학의 일부 연구가 실험실의 언어를 다룬 적이 있었고, 그 영향이 현대의 국어교육 안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생화용에 대한 논의가 역동적인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언어는 정적일 때에는 가치 중립적이며, 일정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둘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담게 되기 때문이다. 언어 사용에서 '상생'의 가치를 담으려면 반드시 그 언어는 역동적인 사용이어야 한다.

둘째, 상생화용에 대한 개념을 유지하되 반드시 고려할 점은 상생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상생화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언어 사용에 상대방을 돕고 살리는 기능을 부가한다는 점이다.⁸⁾ 상생화용에 대한 논의가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도외시하고 언어 사용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우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만을 강조하게 되면 안 된다. 상생적 언어 사용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언어 사용의 목적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생화용은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최대한 상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차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한 한계로 인식해야 한다.⁹⁾ 물론 의사소통의 목적이 상대방을 살리는 것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은 이와

8)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상생화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만 말한다.

9) 때로는 의사소통의 목적 자체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의 의사소통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는 다른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명문을 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되 청자나 독자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상생화용은 의사소통이라는 기본 목적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생이라는 것이 기본 목적을 제약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생이 지나치면 상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생이란 ‘갑’과 ‘을’이라는 둘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갑’이 ‘을’을 돕고 살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을’ 역시 ‘갑’을 돕고 살리는 관계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하나는 상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¹⁰⁾ 이러한 관계를 언어 사용에 적용하여 상호 균형을 잡으며 상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언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이다. 화자나 청자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런데 상생이라는 목적을 중시할 경우 의사소통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고 표류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상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의사소통을 대치하거나 의사소통보다 우선하게 될 경우 상생화용이 아니라 이미 목적을 상실한 언어 사용이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상생화용에 대한 모든 연구와 활용은 위의 개념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언어 사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생화용은 21세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철학적, 시대적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자기 증식을 통해 끊임없이 확장하다가 중국에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0) 예를 들어, 오행상생에 의하면 물[水]이 있어야 나무[木]가 산다[生]고 하지만,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나무는 죽게 되고, 나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물은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상생은 적절한 균형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깨어질 경우 상극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

Ⅲ. 상생화용의 교육적 위상

상생화용은 기존의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문제 의식의 내용을 한 마디로 하면, 서구 중심의 투쟁적 언어 사용이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언어 사용은 오히려 인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인간의 가치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동양의 상생적 철학에 기반을 두고 공존 공영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언어 사용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구체화되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생화용의 출발 배경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상생의 언어 사용이 매우 중요하며, 언어 사용이 인간을 서로 살리는 것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인간적 동의도 상생화용의 등장에 한 몫을 한다.

1. 상생화용과 전체 교육의 관계

상생화용은 가치 지향적인 연구이며 활동이다. 언어를 사용하되 상생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상생이라는 가치를 언어를 통해 구현하려 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현재 국어교육의 논의와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생적 언어 사용은 언어를 사용하되 상생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 내적 논의에 포함될 수 있는 독특한 가치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하면 특정 이데올로기나 철학, 인간관과 사회관을 비롯한 여러 가치를 떠올리게 된다. 과거 국어교육에서 다룬 가치는 효도와 우애, 정직과 어른 존경, 협동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상생적 언어 사용은 이런 가치와는 다르면서도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다음은 '이해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중학교 교과서에 실은 글의 일부이다.¹¹⁾

위그든 씨는 나에게 몸을 구부리며 물었다.

“너, 이만큼 살 돈은 가지고 왔니?”

“네”

나는 대답(對答)했다. 그리고는 주먹을 내밀어, 위그든 씨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은박지로 정성스럽게 쓴 여섯 개의 버찌씨를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위그든 씨는 잠시 자기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한동안 내 얼굴을 구석구석 바라보는 것이었다.

㉔ “모자라나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나서 대답했다.

㉕ “돈이 좀 남는 것 같아. 거슬러 주어야겠는데……”

그는 구식 금고 쪽으로 걸어가더니, ‘철렁’거리가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돌아와서 몸을 굽혀, 앞으로 내민 내 손바닥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밑줄은 필자 주)

이 예화가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면 그것은 과거의 국어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된다. 그러나 상생화용을 도입한 국어교육에서는 사람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위의 예에서 중요한 것은 원문 전체도 아니고 제시한 글도 아니다. 상생화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줄친 부분이다. 글의 ㉔“모자라나요?”에 대하여 상생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㉕이외에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㉖ “아니, 딱 맞는구나”

㉗ “조금 모자라지만 깎아줄게.”

일단 물건을 파는 쪽에서 물건값보다는 어린 아이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살펴보아야 한다. ㉕~㉗는 상생하는 정도가 다르다.

11) 이 글은 교과서에 실린 폴 빌라드라는 사람의 글의 일부이다. 전문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생략한다.

<표 1> 표현의 상생 정도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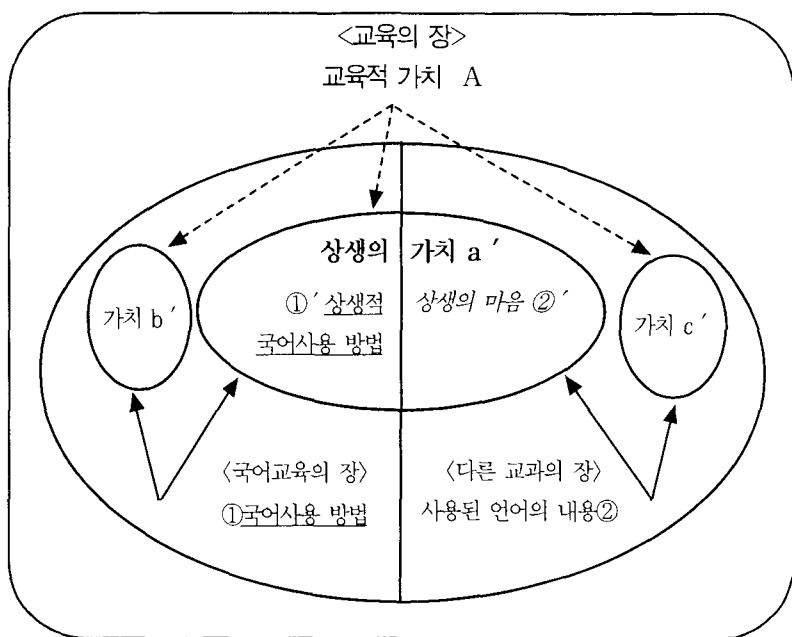
표현	상생의 정도
㉠ "돈이 좀 남는 것 같아. 거슬러 주어야겠는데……" ㉡ "아니, 딱 맞는구나" ㉢ "조금 모자라지만 깎아줄게"	높음 ↑ ↓ 낮음

㉠~㉢ 모두 어린 아이의 마음을 고려하여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건네주는 발화인데도 상생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은 국어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상생의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며,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생화용을 도입하여 국어를 가르친다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여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국어교육에서 상생화용은 가치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상대를 존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상대를 배려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여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¹³⁾ 이렇게 볼 때 상생화용은 국어교육 안에서 교육적 보편성과 교과적 독자성을 모두 지향할 수 있게 된다.¹⁴⁾ 즉 상생화용은 다음과 같은 도식 안에서 교육적 가치와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12) 각각의 반응 대화가 상생의 정도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발표의 장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13) 필자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하여 굳이 재론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에 대한 논쟁이 상생화용 논의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언어와 사고에 대하여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교육적 보편성과 교과적 독자성에 대한 것은 최현섭 외(1996) 제1부 제1장을 참조할 것.



<그림 1> 상생화용의 교육적 위상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은 국어과를 비롯한 여러 교과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비로소 제 모습을 갖게된다. ①, ②의 교과가 모두 모여서 전체 교육 A가 완성된다. 이것이 교과 ①, ②와 교육 전체 A의 관계, 교과①과 교과②(국어과 이외의 다른 교과 모두)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교육적 가치 A는 교과와 관련하여 a', b', c'와 같은 가치로 구성된다. b'는 교육 전체 안에서 국어 교과만의 역할로 규정된 것으로 국어과의 교과적 독립성과 관련된 것이고, c'는 국어 교과 이외의 다른 교과의 역할로 규정된 것이다. 그리고 상생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a'는 내용면에서는 다른 교과와 관련이 있고, 형식면에서는 국어과와 관련이 있다. 이들 모두가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비로소 교육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한편 교과별로 상생과 관련시켜 설명하면, 다른 교과는 가치 c'를

다루면서 동시에 ②'와 같이 상생의 가치를 포괄할 수 있다. c'와 ②'는 모두 내용 교과가 지향하는 가치이다. 그리고 국어과는 ①과 같이 국어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국어 교과의 독자적 역할인 b'와 상생적 국어 사용 방법인 ①'를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생화용은 국어교육의 일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교육 전체의 가치를 담는 한 가지 형태가 된다.

2. 상생화용과 국어 사용 능력

상생화용이 국어교육 전체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가치에 대해 학자들 사이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상생화용이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국어교육을 밀어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밀하게 관찰해보면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상생화용은 언어 사용 능력의 일부가 된다. 상생화용이 상생적 언어 사용이고, 그 의미는 언어를 사용할 때 상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의미만으로도 이미 언어 사용 능력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생적 언어 사용이라는 말이 이미 언어 사용의 일부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상생화용은 언어 사용 능력의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하여 보자.

언어 사용 능력은 다음과 같이 6 단계로 수준을 나눌 수 있다.¹⁵⁾

15) 최영환(2003: 183)에서는 M.Canale(1983: 9-10)을 토대로 하여 언어 사용 능력의 수준별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언어 사용 능력의 수준별 구성 요소

수준	구성 요소	구체적 내용
낮은 수준	기호, 해호 능력	음성과 문자 식별, 발음과 표기 능력
	문법적 능력	형태, 통사, 의미에 관한 능력
	의미 구성 능력	기본적인 이해, 표현 능력
높은 수준	담화적 능력	상황, 맥락에 맞는 사용 능력
	사회문화적 능력	사회와 문화에 관한 이해와 표현 능력
	언어에 관한 능력	언어관, 언어 심리, 언어역사에 관한 지식

여기에서 높은 수준의 언어 사용 능력인 담화적 능력, 사회문화적 능력, 언어에 관한 능력은 상생화용을 담는 범주가 된다. 상황과 맥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중 일부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일 수 있고,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떤 언어 사용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 알고 사용하는 것 역시 상생화용을 포괄하며, 언어와 사고의 관계나 언어와 심리의 관계 등도 그러하다. 따라서 상생화용의 일부는 분명히 국어사용의 한 부분이다. 상생화용도 언어 사용이기 때문이다.

IV. 상생화용 연구의 방향

상생화용을 국어교육과 전체 교육 속에서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아직 상생화용에 관한 연구가 전면적으로 확산되거나 정교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전제를 분명하게 확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생화용에 관한 논의가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 또는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논의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연구와 보급에 활용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리 확정해 둘 전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상생화용 연구의 초점

상생적 언어 사용은 그 용어가 이미 담고 있듯이, 언어 사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한다. '상생'이라는 측면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21세기에 인류가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자칫 상생화용이 '상생'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¹⁶⁾ 국어과 안에서 상생화용을 연구하고 보급할 때 '상생'의 마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생'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효과적인 언어 사용의 일부이기도 하다.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특정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정확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정확성이 보장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에 덧붙여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표현의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상생의 표현이 있을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의 목적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적 가치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① “애야, 슈퍼 주인이 날짜 지난 것을 팔았구나?”¹⁷⁾

16) 물론 일부 학자들은 상생화용을 '상생'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상생화용을 어느 교과에서 논의하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니 모든 교과가 관심을 가져도 좋고, 또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교과가 나누어져 있는 현재 교육 체제 속에서는 상생화용을 국어과 안에서 논의할 때에는 '상생'보다는 '언어 사용'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국어과가 '상생'의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생'은 <그림 1>과 같이 다른 교과와 국어 교과가 공동으로 협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가치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17) 이 예문은 최현섭(2003: 62)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우유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며느리가 사온 우유를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 이것을 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탓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② “애야, 내가 날짜 지난 것을 사왔구나?”

여기에서 슈퍼 주인이 날짜를 지난 물건을 판 것도 정확한 사실이고, 며느리가 날짜 지난 물건을 사 온 것도 정확한 사실이다. 그런데 둘 다 사실인데도 문장 ①은 상생의 화용이 되고, 문장 ②는 상생의 화용이 되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인가? 문장 ②는 문장이 표현하는 의미가 곧바로 말하는 이가 표현하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이지만, 문장 ①은 문장이 표현하는 의미는 말하는 이가 표현하려는 의미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이다. 이러한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상생화용을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국어교육이다. 즉 ①의 문장이 ②의 문장보다 좋은 표현이라거나 상생의 표현이라고 가르치기보다는 ①과 ②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상생화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①로 표현하거나 ②로 표현하는 심리적 기제 자체는 국어과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상생화용은 언어사용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상생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든 언어 표현을 통해 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사용에 기반을 둔다는 점이다.

2. 상생화용 연구의 두 축

상생화용에 대한 연구는 언어의 형식과 내용 두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상생화용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대개 인간 존중, 상호 배려, 상대 격려, 사랑 등의 말로 표현되는 구체적 사례를 다루고 있다. 현

“애야, 슈퍼 주인이 날짜 지난 것을 팔았구나?”

며느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슈퍼 주인에게 그 책임을 돌린 것이다. 며느리는 일단 직접 책망을 듣지 않았으므로 마음의 상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며, 며느리가 앞으로는 날짜를 확인할 것이므로 시어머니의 가르침은 달성된 것이다. 매우 현명하고 우아한 화법이 아닌가.

재까지의 논의는 주로 언어로 표현된 내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이는 상생화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기존의 교육 환경이나 국어교육 풍토와는 색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상생화용 연구에서 이러한 사례는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생적 언어 사용을 위한 일반 원리와 언어 사용 전략을 추출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언어 사용은 반드시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의사소통에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상생화용이 주로 내용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는 까닭은 내용 중심 접근이 연구에 용이하다는 점 이외에도 상생화용이 형식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철학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상생이 이미 동양의 오랜 철학적 기반 위에서 일정한 내용으로 자리잡았고, 현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상호 경쟁을 버리고 상호공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함께 멸망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 의식까지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상생적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가 지나치게 내용 중심으로 흐르면 자칫 윤리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어교육으로부터 이탈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상생화용에 대한 논의는 형식과 내용의 두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표현이 형식의 면에서도 상생적 사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면에서도 상생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를 통해 살펴보자.

추운 날에 어떤 사람이 실내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어놓고 들어온 경유를 생각해 보자. 그 사람보다 먼저 실내에 앉아있던 사람은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문을 닫아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정확한 의도인데 형식의 면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③ “문 좀 닫아라.”

④ “문 좀 닫아줄래?”

- ⑤ “문 닫으면 안될까?”
- ⑥ “문을 닫으면 좋을텐데.”
- ⑦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 ⑧ “문 좀 닫아주실 수 있겠어요?”¹⁸⁾

③~⑧은 의사소통의 목적이 동일한데 표현 형식은 다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고¹⁹⁾ 형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③은 명령문으로 청자에게 직접 명령을 하는 언어 사용이므로 청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 것이고, 이로 인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런데 ④는 이것보다는 좀더 부드럽게 표현하여 청자의 반응이 다소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였고, 점차 ⑧로 갈수록 청자에 대한 대우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때에도 언어 형식을 위와 같이 ③에서 ⑧로 차례로 바꾸어가면 상생의 언어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위의 예는 다음과 같은 예로 바꿀 수도 있다.

- ⑨ “나 감기 걸렸어”
- ⑩ “출지 않니?”
- ⑪ “아직은 바람이 찬 듯 하구나.”
- ⑫ “환기가 다 된 것 같아”

⑨~⑫도 의사소통의 기본 목적은 ③~⑧과 동일하지만, 형식의 차이만이 아니라 언어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까지 다르게 하여 상생적 사용

18) ③~⑧이 상대를 배려하는 정도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상세한 논의는 피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언어 형식상의 차이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

19) 물론 ③~⑧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용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언어학적 엄밀성을 배제하고, 앞으로 논의할 언어 내용과의 구별을 위해 형식적인 면이라고 밝혀 둔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 내용은 연표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겠다.

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²⁰⁾ 즉 ③~⑧은 형식을 차별화하여 상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면, ⑨~⑫는 형식뿐 아니라 내용까지 차별화하여 상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⑩은 ④, ⑤, ⑧과 의문문이라는 점에서 형식은 같은데, 표현된 내용은 '출지 않은지'를 묻는다. 이것을 통해 청자에게 '문이 열려 있으니 닫아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청자는 ③과 같이 직접 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④~⑧과 같이 언어 표면에 요구를 담은 말을 들은 것도 아니다. 청자는 ⑨~⑫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요구가 전달되었는지 파악하고 스스로 그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상생의 핵심이다. 이런 전체를 고려하면, 상생적 언어 형식과 내용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임을 할 수 있다.²¹⁾

3. 상생화용과 언어 사용 전략²²⁾

상생화용이 언어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다루면서 언어 사용 방법에 중점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면, 이는 한 마디로 언어 사용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위의 예에서 날짜 지난 우유를 사온 며느리에게 ①, ②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언어 사용자의 생각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③~⑫에서의 선택 역시 언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언어 사용자는 어떤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언어 사용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오랜 논의에 기반을 두고 살펴볼 수 있다. 문제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존재하지만, 그

20)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언어가 담고 있는 '상생의 마음'과는 다르다. 상생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에 담아야 할 내용을 말한다. 즉 상생의 마음은 추상적 수준이 되고, 그것이 언어 표현으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내용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재론하기로 한다.

21)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22) 상생적 언어 사용 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전략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을 말한다.²³⁾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시 위의 예를 활용하기로 한다.

날짜가 지난 우유를 사온 며느리에게 다음부터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고 물건을 사도록 가르침을 주려는 시어머니는 ①, ②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 다만, 두 표현의 효과가 다를 뿐이다. 시어머니는 ①, ②의 표현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부수적인 표현 효과가 무엇인지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시어머니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①과 같이 표현했다면 그는 전략적으로 언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물론 상생화용은 이러한 단계를 지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상생화용이 지향하는 도달점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①과 ②의 의미 차이와 사용 맥락, 효과 등을 모두 알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한 것이어야만 비로소 상생화용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그것이 교육에 의한 것이든 경험에 의한 것이든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진정한 상생은 다양한 언어 표현 중에서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한 가지 형식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표현 밖에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을 모두 갖고 있으나 상생적 언어 사용을 위해 특정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화용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상생화용은 특정 상황과 맥락으로부터 벗어나 보편적 사용 능력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V. 결론

이 글은 상생화용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논의하면서도 필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

2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영환(2003: 123~129)을 참조할 것.

는 언어 사용 전략이라는 면에 초점을 두고 상생화용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상생화용이 국어 교과에서 이탈하여 표류하거나 타교과와의 연구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해 불필요한 연구의 중복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다. 필자는 지금까지 상생화용을 연구한 모든 논의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연구 결과에 상당 부분 의지하려는 마음도 갖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연구의 흐름과 유사한 논의를 추가하기보다는 필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상생화용을 연구하여 상생화용을 균형있게 바라보고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자는 상생화용이 교육 전체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어 교과나 다른 교과와는 어떤 관계에 서는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생화용은 고등 수준의 국어사용 능력이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상생화용의 연구가 상생적 '언어 사용'의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것은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상생화용은 결국 언어 사용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 방향에 근거하여 상생적 언어 사용을 위한 전략, 즉 언어 형식의 면에서 사용할 전략과 언어 내용의 면에서 사용할 전략을 개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본 논문은 2005. 2. 12. 투고되었으며, 2005. 3. 16. 심사가 시작되어 2005. 3. 2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상대(1997), “동양언어관의 특성”, 『국어교육』 95집, 207-22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_____(1998), “언어의 진실성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제5집, 49-70,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이규호(1994), 『말의 힘』, 제일출판사.
- 이남영 외(2003), 『세계와 인간에 대한 동양인의 사유』, 천지.
- 이어령(1998), “정보화 시대와 仁의 문화 : 유교 사상의 21세기적 패러다임”, 『21세기의 도전, 동양 윤리의 응답』,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조동일(1997),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 출판부.
- 최영환(2003), 『국어교육학의 지향』, 삼지원.
- 최현섭(2003), “相生話用論 序說”, 『국어교육』 113집, 27-78,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Capra, Fritjof, 이성범 · 김용정 옮김(1989),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증보 제3판, 범양사 출판부.
- Library, Roberts, 김의철 · 박영신 옮김(1997), 『문화와 사고』, 교육과학사.
- Postman, Neil, 차동춘 옮김(1999), 『교육의 종말』, 문예출판사.

〈초록〉

언어 문화로서 상생화용 연구의 토대

최영환

이 글은 상생화용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논의하면서도 필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언어 사용 전략이라는 면에 초점을 두고 상생화용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지금까지 상생화용을 연구한 모든 논의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연구 결과에 상당 부분 의지한다. 그러나 필자는 필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상생화용을 연구하여 상생화용을 균형있게 바라보고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자는 상생화용이 교육 전체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어 교과나 다른 교과와는 어떤 관계에 서는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생화용은 고등 수준의 국어사용 능력이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상생화용의 연구가 상생적 '언어 사용'의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것은 언어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상생화용은 결국 언어 사용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 방향에 근거하여 상생적 언어 사용을 위한 전략, 즉 언어 형식의 면에서 사용할 전략과 언어 내용의 면에서 사용할 전략을 개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상생, 상생화용, 전략, 상생적 언어 사용, 언어 사용 방법

〈Abstract〉

A Fundamental Concepts of Sang-Saeng Language Utility

Choi, Yeong-hwan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oncepts of Sang-Saeng Language Utility and the phase of i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oncepts of Sang-Saeng Language Utility and the phase of i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 have been so many studies on Sang-Saeng Language Utility in the last few years. This paper is different from these studies. Because, this focus on the interrelationships of Sang-Saeng Language Utility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mong subjects in whole education.

Sang-Saeng Language Utility is a language usage of high level. We have to conduce students from low level language usage to high level usage. The quality of Sang-Saeng language Utility depends upon the speaker's specific knowledge. A study on the Sang-Saeng Language Utility involves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strategies of the context and language. Because persons of equal language skills will vary on the quality of their language products if they possess different degrees of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Sang-Saeng Language Utility.

So, we have to study the strategies of Sang-Saeng Language Utility and promote to use these strategies in the real context.

【Key word】 Sang-Saeng Language Utility, strategy, skill, context